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16권 제1호(2003년 8월)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3;16(1):1-32

大韓眼耳鼻咽喉皮膚科學會誌에 掲載된 研究論文들의 傾向性 考察

권강 · 서형식*

The Study on the Trend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Society.

Kang Kwon · Hyung-sik Seo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trend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Society(JOMSOOS).

Methods: We studied the 308 research papers that had been published in JOMSOOS from 1988 Vol. 1. No. 1. to 2002 Vol. 15. No. 2. Our study was developed through the four stages in order to analyze the papers;

- 1) we analyzed all the papers overall to classify them into three categories; original article, review article and case report.
- 2) we classified the original articles in terms of methodology.
- 3) we also analyzed the case reports according to the sort of disease each paper dealt with.
- 4) we had another statistical approach to each paper to figure out the distribution of diagnoses in detail.

Results: We have got the following outcomes from our analysis of the papers in terms of the four stages.

*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교신저자: 권강,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번지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TEL: 033-741-9371, E-mail: hanny98@chollian.net)

1. Overall Analysis.

- 1) Classification of 308 research papers between 1988 and 2002: 137 original articles(44.48%), 111 review articles(36.04%), 56 case reports(18.18%).
- 2) Used language: Korean(99.03%), English(0.97%).
- 3) The Number of Authors: 2 persons(42.86%), 3 persons(29.87%), 1 person(14.61%).

2. Original Article Analysis

- 1) Classification of 137 original articles in terms of methodology: 90 experimental studies(65.69%), 46 descriptive studies(33.58%), 1 analytic study(0.73%).
- 2) Classification of the original articles according to the use of statistical methods: No statistical methods(36.42%), Descriptive methods only(1.99%), Not defined(23.18%), t-test(24.50%), ANOVA(3.97%), Multiple comparison(2.65%), Non-parametric test(2.65%), Other methods(1.32%).
- 3) Classification of 46 descriptive articles in terms of diseases: otorhinolaryngology(43.48%), dermatology(23.91%), ophthalmology(13.04%), facial palsy(13.04%).
- 4) Classification of descriptive article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ients: the highest was 'more than 26 but less than 50 persons'(19 articles - 41.30%).
- 5) Classification of descriptive articles in terms of the period for patients observation: the highest was the time 'more than 9 but less than 12 months(34.78%)' Out of the 34.78%, the number of articles with the patients observed for more than 12 months was 13(28.26%).

3. Case Report Analysis

- 1) Classification of 56 case reports in terms of the sort of disease: dermatology(44.64%), ophthalmology(19.64%), otorhinolaryngology(14.29%), facial palsy(8.93%).
- 2) Classificat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ients: 1 person(50%), 3 persons(16.07%), 2 persons(14.29%).

4. Diagnosis Distribution of Each Disease.

- 1) Studies regarding ophthalmology : the percentage of 'strabismus' cases was the highest(33.33%).
- 2) Studies regarding otorhinolaryngology: nasal inflammation(34.48%), tinnitus(20.69%).
- 3) Studies regarding dermatology: the percentage of 'allergic skin disease' was the highest(33.33%).

Conclusions: We analyzed the trends of research paper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JOMSOOS in detail. We came to underst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 through this study. However, we acknowledge that we only adopted the quantitative method out of various possible analysis methods. For further studies, we strongly urge to adopt the qualitative methods as well.

Key words :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Society, Analysis, Trend, Research paper, Article

서론

연구자가 학문을 연구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학회지에 발표하여 검증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같은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여 의견교환을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다⁸⁾. 이는 연구자와 다른 연구자들, 연구자와 독자들의 상호간에 비판적인 검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회지의 연구 경향에 대한 수량학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통한 자기평가가 필수적이다⁹⁾.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처럼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에 대하여 경향성을 분석한 경우는 의학계에서는 서 등¹⁰⁾의 가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성 분석, 손 등¹²⁾의 응급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과 한의학계에서는 고⁸⁾의 한방내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 이¹³⁾의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통계처리 방법에 대한 분석 등 몇몇 학회지의 적은 수의 논문들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역시 1988년 2월 창간호가 발행된 후 2002년 12월의 제 15권 2호까지 약 15년 동안 발행되었으며 해당 학회의 최대 학회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학회지에 수록되었던 논문들의 경향성에 대하여 연도별, 분야별로 비교 고찰하는 자기평가 형식의 논문이 발표된 적이 없었다. 이는 학회 회원들의 관심 증가와 한방 전문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게재 논문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최근 들어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며 또한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학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로 학문의 범위가 갈라져

있어서 학문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바, 그로 인하여 논문의 연도별, 질환군별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일은 본 학회와 학문의 발전에 더욱 긴요하다고 하겠다. 저자 역시 과거에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논문의 독창성, 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투고 당시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경향성을 알고 싶었으나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포기한 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대적 요청과 저자의 경험을 근간으로 하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논문의 경향성에 대하여 학문적인 갈증을 느끼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계획하였다. 연구의 방법상 논문들의 분석은 기존에 발표된 한·양방 관련 논문들의 분석 방법을 비교, 종합하여 취사선택을 하였고 수량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한 지견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는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지로서 1988년에 '대한외관과학회지'라는 명칭으로 제1권 1호가 간행된 이후 1998년까지 매년 1회씩 간행되었다. 이어서 1999년부터는 매년 2회씩 간행되었고 2002년부터는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12월 현재 제15권 2호까지 간행되었다. 2002년 12월까지 간행된 횟수는 총 19회이고 게재된 논문의 수는 총 308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 2월 '대한외관과학회지' 제1권 1호부터 2002년 12월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15권 2호까지 약 15년 동안 게재된 논문 308편 전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이상에서 조사된 논문들을 전체 논문 관련 항목, 원저 관련 항목, 증례보고 관련 항목, 각 질환군의 세부 영역별 분포 관련 항목의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전체 논문 관련 항목은 연도별 논문의 종류, 논문의 사용 언어, 논문의 저자 수에 따라 분류하였다. 전체 논문을 종설, 원저, 증례보고,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하였고 원저를 연구방법에 따라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로 나누었다. 게재 논문수가 매년 변화하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권과 호가 아닌 연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였고 사용 언어는 논문 전체에 걸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논문의 저자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둘째, 원저 관련 항목은 연도별 원저의 연구방법, 원저의 통계방법에 따라 분류하였고 원저 중 기술적 연구의 질환군별 분류, 환자 수 및 관찰 기간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원저의 연구방법은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로 나눈 뒤 다시 분석적 연구를 단면적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로, 실험적 연구를 동물실험 연구와 임상실험 연구로 세분하였다¹⁾. 원저의 통계방법은 논문의 편수에 구애받지 않고 중복하여 산정하였고 백분율만 표시한 경우는 'No statistical methods' 항목으로, 평균이나 표준편차 등을 표시한 경우는 'Descriptive statistics only' 항목으로 분류하였다¹⁴⁾. 원저 중 기술적 연구의 환자수별 분포와 관련하여 25인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나누었고, 126인 이상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관찰 기간에 따른 분류에서는 12개월까지는 논문 편수가 많은 관계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셋째, 증례보고 관련 항목은 연도별 증례보

고들을 질환군별로 분류하였고 증례보고의 증례수별로 분포를 조사하였다. 연도별 증례보고의 질환군별 분류에서 어느 질환군에도 분류하기 힘든 경우는 '기타' 항목에 배속시켰다.

넷째, 각 질환군의 세부 영역별 분포 관련 항목은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의 세부 영역에 따라 각각의 질환별로 분포를 조사하였다. 본 항목은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본 학회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신 등²⁾의 이론에 따라서 기술적 연구와 증례보고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관찰하였다. 각 질환군별 세부 영역은 안과, 이비인후과는 盧³⁾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 12개, 19개의 항목으로 나누었고, 피부과는 宋⁶⁾과 歐⁷⁾의 분류를 종합, 분석하고 취사선택하여 저자의 임의로 24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또한 모든 Table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합 옆에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분석

1. 전체논문 관련 항목

1) 연도별 논문의 종류에 따른 분류

학회지 게재 논문의 수를 연도별로 관찰한 결과 2002년 게재된 논문의 수가 50편(1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1년(49편, 15.91%), 1999년(35편, 11.36%), 2000년(29편, 9.42%) 순으로 최근 4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163편(52.9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하였고, 이는 1999년 이후 게재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어 준다. 게재된 논문의 종류별 분류로는 원저가 137편(44.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설(111편, 36.04%), 증례보고(56편, 18.18%)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연도별 논문의 종류에 따른 분류

	중설	원저	증례보고	기타	합(%)
1988	4	4	1	2	11(3.57)
1989	5	2	2	2	11(3.57)
1990	5	5	1	0	11(3.57)
1991	3	5	0	0	8(2.60)
1992	7	3	2	0	12(3.90)
1993	6	5	3	0	14(4.55)
1994	6	3	4	0	13(4.22)
1995	7	3	3	0	13(4.22)
1996	7	6	2	0	15(4.87)
1997	12	5	2	0	19(6.17)
1998	7	11	0	0	18(5.84)
1999	15	20	0	0	35(11.36)
2000	10	18	1	0	29(9.42)
2001	8	20	21	0	49(15.91)
2002	9	27	14	0	50(16.23)
합(%)	111(36.04)	137(44.48)	56(18.18)	4(1.30)	308(100)

2) 논문의 사용 언어에 따른 분류

논문의 사용 언어는 총 308편 중에서 한국어가 305편(99.0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영어를 사용한 경우는 3편(0.97%)에 불과하였다(Table 2).

2. 원저 관련 항목

1) 연도별 원저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연도별로 원저를 분류하였을 때 1999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85편으로 전체의 62.04%

Table 2. 논문의 사용 언어에 따른 분류

	중설	원저			증례보고	기타	합(%)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			
한국어	111	46	1	87	56	4	305(99.03)
영어	0	0	0	3	0	0	3(0.97)
합(%)	111 (36.04)	46 (14.94)	1 (0.32)	90 (29.22)	56 (18.18)	4 (1.3)	308(100)

3) 논문의 저자 수에 따른 분류

논문의 저자 수는 2인인 논문이 132편(42.86%)으로 가장 많았고 3인인 논문이 92편(29.87%)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이어서 1인(45편, 14.61%), 4인(28편, 9.09%)의 순이었다(Table 3).

를 나타내었고 이는 전체 논문 발표량의 추세가 1999년 이후 4년간 급격히 증가한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연구방법에 따라 원저를 분류한 결과 동물실험 연구가 85편(62.04%)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적 연구가 46편(33.58%)으로 그 다음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는 임상실험 연구와 환자-대조

Table 3. 논문의 저자수에 따른 분류

	총설	원저			증례보고	기타	합(%)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			
1인	14	10	0	6	12	3	45(14.61)
2인	55	20	1	42	14	0	132(42.86)
3인	35	10	0	30	17	0	92(29.87)
4인	6	5	0	5	12	0	28(9.09)
5인	1	0	0	2	0	0	3(0.97)
6인이상	0	0	0	5	1	0	6(1.95)
기타	0	1	0	0	0	1	2(0.65)
합(%)	111 (36.04)	46 (14.94)	1 (0.32)	90 (29.22)	56 (18.18)	4 (1.30)	308(100)

군 연구는 각각 5편(3.65%), 1편(0.73%)을 나타내었고 단면연구나 코호트 연구는 한 편도 없었으며, 이는 아직 원저 연구방법의 경향이 기술적 연구와 동물실험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Table 4).

2) 원저의 통계방법에 따른 분류

원저에 있어서 통계처리 기법을 전혀 사용

하지 않았거나 기술통계 방법만을 사용한 경우는 58례로 전체의 38.41%였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처리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논문의 편수 기준으로 총 137편 중 80(58.39%)이었고 사용례를 기준으로 총 151례 중 93례(61.59%)이었으며, 이는 원저 한 편당 1.16례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Table 4. 연도별 원저의 연구방법

	기술적 연구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		합(%)
		A	B	C	D	E	
1988	1	0	0	0	3	0	4(2.92)
1989	0	0	0	0	2	0	2(1.46)
1990	1	0	0	0	4	0	5(3.65)
1991	2	0	0	0	3	0	5(3.65)
1992	2	0	0	0	1	0	3(2.19)
1993	1	0	0	0	4	0	5(3.65)
1994	2	0	0	0	1	0	3(2.19)
1995	2	0	0	0	1	0	3(2.19)
1996	5	0	0	0	1	0	6(4.38)
1997	4	0	0	0	1	0	5(3.65)
1998	5	0	1	0	4	1	11(8.03)
1999	6	0	0	0	12	2	20(14.60)
2000	3	0	0	0	14	1	18(13.14)
2001	4	0	0	0	16	0	20(14.60)
2002	8	0	0	0	18	1	27(19.71)
합(%)	46(33.58)	0(0)	1(0.73)	0(0)	85(62.04)	5(3.65)	137(100)

* A: 단면 연구, B: 환자-대조군 연구, C: 코호트 연구, D: 동물실험 연구, E: 임상실험 연구

Table 5. Statistical methods in the original articles

	Descriptive study	Analytic study	Experimental study	Total No(%)
Descriptive statistics only	0	0	3	3(1.99)
t-test	4	1	33	38(24.50)
ANOVA	1	0	5	6(3.97)
F-test	1	0	0	1(0.66)
Multiple comparison	0	0	4	4(2.65)
Correlation analysis	1	0	0	1(0.66)
Regression analysis	1	0	0	1(0.66)
x ² -test	1	0	0	1(0.66)
Non-parametric test	0	0	4	4(2.65)
Life table & survival analysis	0	0	1	1(0.66)
Other methods	0	0	2	2(1.32)
Not defined	3	0	31	34(23.18)
No statistical methods	38	0	17	55(36.42)
Total No.(%)	50(33.11)	1(0.66)	100(66.23)	151(100)

* 사용례 기준으로 중복산정함.

t-test를 사용한 경우가 38례(24.50%)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한 통계처리 기법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34례(23.18%)로 그 다음이었고 ANOVA(6례, 3.97%), Multiple comparison, Non-parametric test(각 4례,

2.65%)가 그 뒤를 이었다(Table 5).

3) 연도별 원저 중 기술적 연구의 질환군별 분류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술적 연구는 최저 0편(1999년)에서 최고 8편(2002년)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질환군별로 보았을

Table 6. 연도별 기술적 연구의 질환군별 분류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구안와사	기타	합(%)
1988	0	0	1	0	0	1(2.17)
1989	0	0	0	0	0	0(0)
1990	0	1	0	0	0	1(2.17)
1991	0	1	0	1	0	2(4.35)
1992	0	2	0	0	0	2(4.35)
1993	0	1	0	0	0	1(2.17)
1994	0	1	0	1	0	2(4.35)
1995	1	1	0	0	0	2(4.35)
1996	1	2	2	0	0	5(10.87)
1997	1	1	1	1	0	4(8.70)
1998	1	2	1	1	0	5(10.87)
1999	0	3	1	1	1	6(13.04)
2000	0	0	1	1	1	3(6.52)
2001	1	2	1	0	0	4(8.70)
2002	1	3	3	0	1	8(17.39)
합(%)	6(13.04)	20(43.48)	11(23.91)	6(13.04)	3(6.52)	46(100)

때 이비인후과 질환이 20편(4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피부과 질환(11편, 23.91%), 안과 질환(6편, 13.04%), 구안와사(6편, 13.04%)의 순이었다(Table 6).

4) 원저 중 기술적 연구의 환자수별 분포

기술적 연구를 환자수별로 나누어서 분포경향을 보았을 때 26명 이상 30명 이하가 19편(41.30%)으로 가장 많았고 1명 이상 25명 이하와 51명 이상 75명 이하, 126명 이상이 각각 6편(13.04%)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Table 7).

Table 7. 기술적 연구의 환자수별 분포

환자 수	논문 수(%)
1-25	6(13.04)
26-50	19(41.30)
51-75	6(13.04)
76-100	5(10.87)
101-125	4(8.70)
126 이상	6(13.04)
합(%)	46(100)

5) 원저 중 기술적 연구의 관찰 기간별 분포

기술적 연구를 관찰 기간별로 나누었을 때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가 16편(34.78%)을 나타내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관찰 기간을 만 1년(12개월)으로 잡은 경우가 13편(28.26%)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술적 연구의 총 46편 중에서 관찰 기간을 1년(12개월) 이하로 잡은 경우가 30편(65.22%)이었고 관찰 기간을 1년(12개월) 초과로 잡은 경우가 15편(32.61%)이었으며 관찰 기간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1편(2.17%)이었다(Table 8).

Table 8. 기술적 연구의 관찰 기간별 분포

기간	논문 수(%)
0 ~ 3개월 이하	2(4.35)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6(13.04)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6(13.04)
9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16(34.78)
12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9(19.57)
24개월 초과	6(13.04)
밝히지 않음	1(2.17)
합(%)	46(100)

3. 증례보고 관련 항목

1) 연도별 증례보고의 질환군별 분류

증례보고의 연도별 추이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총 56편 중에서 21편(37.5%)을, 2001년 이후가 35편(62.5%)을 차지하여 2001년 이후 발표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시행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질환군별로 보았을 때는 피부과 질환이 25편(44.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안과 질환(19.64%), 이비인후과 질환(14.29%), 구안와사(8.93%)의 순이었으며 이는 이비인후과 질환(43.48%), 피부과 질환(23.91%), 안과 질환과 구안와사(각 13.04%)의 순이었던 기술적 연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논문의 비율이 적고 피부과 질환 관련 논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9).

Table 9. 연도별 증례보고의 질환군별 분류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구안와사	기타	합(%)
1988	0	0	1	0	0	1(1.79)
1989	0	0	1	0	1	2(3.57)
1990	0	0	1	0	0	1(1.79)
1991	0	0	0	0	0	0(0)
1992	1	0	1	0	0	2(3.57)
1993	2	0	1	0	0	3(5.36)
1994	2	0	1	0	1	4(7.14)
1995	1	0	2	0	0	3(5.36)
1996	2	0	0	0	0	2(3.57)
1997	0	1	1	0	0	2(3.57)
1998	0	0	0	0	0	0(0)
1999	0	0	0	0	0	0(0)
2000	0	0	0	0	1	1(1.79)
2001	2	2	9	5	3	21(37.50)
2002	1	5	7	0	1	14(25.00)
합(%)	11(19.64)	8(14.29)	25(44.64)	5(8.93)	7(12.50)	56(100)

2) 증례보고의 증례수별 분포

증례보고의 증례수별 분포를 보았을 때 증례 1례인 경우가 28편으로 총 56편 중에서 50%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이어 3례와 2례가 각각 16.07%, 14.29%를 차지하여 3례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0.36%를 나타내었다 (Table 10).

Table 10. 증례보고의 증례수별 분포

증례 수	논문 수(%)
1례	28(50)
2례	8(14.29)
3례	9(16.07)
4례	4(7.14)
5례	2(3.57)
6례	5(8.93)
합(%)	56(100)

4. 각 질환군의 세부 영역별 분포 관련 항목

1) 기술적 연구와 증례보고의 안과 질환 관련 세부 영역별 분포

안과 질환과 관련된 논문은 증례보고가 11편(61.11%)으로 기술적 연구(7편, 38.89%)보다 많았으며 질환별로는 目偏視 질환이 6편(33.33%)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1).

2) 기술적 연구와 증례보고의 이비인후과 질환 관련 세부 영역별 분포

이비인후과 질환과 관련된 논문은 기술적 연구가 21편(72.41%)으로 증례보고의 경우(8편, 27.59%)보다 현저히 많았고 이비인후과 질환을 다시 각 과별로 분류하였을 경우 鼻科 질환이 17편(58.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耳科 질환이 9편(31.03%)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口齒科나 咽喉科 질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 절반 이상(55.17%)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2).

Table 11. 안과질환 관련 세부 영역별 분포

	기술적 연구	증례보고	합(%)
眼胞·眼瞼疾患	0	1	1(5.56)
眦部疾患	0	0	0(0)
白睛疾患	1	0	1(5.56)
黑睛疾患	0	0	0(0)
瞳神疾患	0	1	1(5.56)
目偏視疾患	0	6	6(33.33)
內障疾患	2	0	2(11.11)
眼昏·眼盲疾患	1	1	2(11.11)
眼花疾患	0	0	0(0)
妄視·視或疾患	0	1	1(5.56)
近遠·遠視疾患	3	0	3(16.67)
其他	0	1	1(5.56)
합(%)	7(38.89)	11(61.11)	18(100)

Table 12.耳鼻咽喉科疾患 關聯 細部 영역별 분포

	기술적 연구	증례보고	합(%)
耳科	5	4	9(31.03)
耳介疾患	0	0	0
外耳道疾患	0	0	0
鼓膜疾患	0	0	0
中耳疾患	1	1	2
內耳疾患	4	3	7
鼻科	13	4	17(58.62)
外鼻疾患	0	1	1
鼻中膈疾患	0	0	0
鼻腔疾患	11	2	13
副鼻腔疾患	2	1	3
口齒科	0	0	0(0)
口中疾患	0	0	0
唇疾患	0	0	0
舌疾患	0	0	0
齒齦疾患	0	0	0
咽喉科	2	0	2(6.90)
乳蛾疾患	1	0	1
喉痺疾患	0	0	0
咽喉의 證候性疾患	1	0	1
喉風疾患	0	0	0
喉頭의 證候性疾患	0	0	0
聲音·言語障得	0	0	0
其他	1	0	1(3.45)
합(%)	21(72.41)	8(27.59)	29(100)

또한 鼻科 질환 중에서 鼻腔 질환이 13편을, 耳科 질환 중에서 內耳 질환이 7편을 차지하여 두 영역이 전체 이비인후과 질환의 68.97%에 해당하였다. 또한 鼻腔 질환 중에서 鼻炎 관련 질환이 10편, 內耳疾患 중에서 耳鳴 관련 질환이 6편으로 이 두 질환이 전체

피부과 질환과 관련된 논문의 비율은 증례 보고가 25편(69.44%)으로 기술적 연구의 11편(30.56%)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세부 영역별로 病態反應(allergy)性 皮膚病이 12편(3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皮膚 附屬器病(7편, 19.44%), 紅斑·丘疹·鱗屑性 皮膚病(5편, 13.89%)의 순이었다(Table 13).

3) 기술적 연구와 증례보고의 피부과 질환 관련 세부 영역별 분포

Table 13. 피부과질환 관련 세부 영역별 詳細分佈

	기술적 연구	증례보고	합(%)
角化過度·萎縮性 皮膚病	0	0	0(0)
杆菌性 皮膚病	0	0	0(0)
結締組織 및 有關 免疫性 皮膚病	1	1	2(5.56)
球菌性 皮膚病	0	1	1(2.78)
寄生蟲類 皮膚病	0	0	0(0)
內分泌·代謝·營養 障礙性 皮膚病	0	0	0(0)
動物性 皮膚病	0	0	0(0)
物理性 皮膚病	0	1	1(2.78)
病毒(virus)性 皮膚病	0	1	1(2.78)
病態反應(allergy)性 皮膚病	3	9	12(33.33)
色素性 皮膚病	0	0	0(0)
性傳播 疾病	0	0	0(0)
神經機能障礙性 皮膚病	1	0	1(2.78)
遺傳性 皮膚病	0	0	0(0)
粘膜 疾病	0	0	0(0)
職業性 皮膚病	0	0	0(0)
真菌性 皮膚病	0	0	0(0)
疱疹性 皮膚病	0	1	1(2.78)
皮膚 附屬器病	3	4	7(19.44)
皮膚 腫瘤	0	0	0(0)
皮膚 脈管性 皮膚病	0	2	2(5.56)
皮膚美容	0	0	0(0)
紅斑·丘疹·鱗屑性 皮膚病	1	4	5(13.89)
其他	2	1	3(8.33)
합(%)	11(30.56)	25(69.44)	36(100)

고찰

의학 연구논문들은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게재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와 다른 연구자, 연구자와 독자간에 의견교환과 비판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독자 모두 해당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분석, 고찰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방법상으로 크게 수량학적인 방법과 질적인 분석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⁹⁾.

수량학적인 분석 방법은 문헌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여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학문 분야의 연구 흐름을 알고 이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의 학회지 수록 논문에 대한 수량학적인 분석을 한 예로는 의학계에서는 서¹⁰⁾, 심 등¹¹⁾이 가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을, 손 등¹²⁾이 응급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한의학계에서는 서 등¹⁵⁾이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고⁸⁾가 대한 한방내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경향성에 대하여, 이¹³⁾가 대한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통계방식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가 있다.

질적인 평가 방법은 질병의 새로운 원인, 기전, 치료법 등에 대한 수많은 문헌을 접하는 현대의 임상 의사들에게 있어서 이론을 임상에 적용시키기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며, 그 방법상 통계처리 기법 평가,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평가와 이를 위한 점검표의 개발 등을 필요로 한다^{9,16)}. 이는 서양의학계에

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의학계에서는 안 등¹⁷⁾이 1973년 일부 의학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한 이래 이 등¹⁶⁾이 의학협회지의 수록 논문들을 대상으로 시도하였고, 박¹³⁾이 10년간 암학회지에 실린 임상 논문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바 있다. 한의학계에서는 이 등¹⁴⁾이 한의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설계와 통계분석에 대하여, 고⁹⁾가 역시 한의학회지에 게재된 뇌졸중 관련논문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을 시도한 예가 있다. 이처럼 양적, 질적으로 논문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경향은 의학계나 한의학계 모두 그 역사가 길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야 그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중이다.

대한안ibi인후피부과학회지 역시 1988년 창간호가 간행된 이후 2002년까지 제15권 2호가 나왔지만 이러한 양적, 질적 분석이 이루어진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량학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1988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전부를 대상으로 다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본 학회지의 특성상 논문들을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로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차후에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려는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과학적인 의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시작부터 그에 대한 답을 획득하는 종료까지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 이 과정은 연구과제의 정립단계, 연구설계와 기획단계, 자료수집단계, 자료의 분석단계, 연구결과의 공표단계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²⁾. 의학연구 논문은 이 중에서도 특히 '연구설계(research design)와 기획단계'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중설, 원저, 증례보고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중설(review article)은 다른 곳에 이미 보고된 자료를 기

초로 작성된 설명적 또는 해석적인 요약문이고, 원저(original article)는 다른 곳에는 보고한 적이 없는 수집된 자료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 결론을 포함하는 연구물이며, 증례보고(case report)는 하나 또는 수 명의 환자에서 이루어진 관찰로서 집단으로 모으거나 분석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언급된 것이다¹²⁾.

위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988년 창간호부터 2002년 제15권 2호까지 수록된 의학논문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원저가 137편(44.48%), 증설이 111편(36.04%), 증례보고가 56편(18.18%), 기타가 4편(1.30%)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초기 학회지인 제1권 1호와 제2권 2호의 권말에 게재된 특별기고문 형식의 글들이었다.

제출된 전체 논문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총 308편 중에서 163편(52.92%)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였고, 이는 최근 들어서 논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이는 원저만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으로, 최근 4년간 발표된 논문이 85편으로 총 137편 중 62.04%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1.과 Table 2.를 통하여 각 분야별 점유율을 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비율이 각각 전체 논문의 경우 52.92%를, 증설이 37.84%를, 기술적 연구가 45.65%를, 동물실험 연구가 70.59%를, 증례보고가 64.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 연구는 1998년까지 연평균 게재량이 1.9편에 불과하다가 1999년 12편이 게재된 후 매년 2편씩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02년에 18편이 게재되었고 증례보고는 1999년까지 연평균 게재량이 1.6편에 불과하다가 2000년에는 21편이, 2002년에는 14편이 게재되어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증설이나 기술적 연구보다는 동물실험 연구와 증례보고가 최근 4년 동안의 논문수의 증가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이외에 분석적 연구와 임상실험 연구, 기타의 경우는 게재 논문수가 적어서 배제하고 판단하였다.

논문에 사용된 언어를 살펴보면 영어를 사용한 논문은 전체 308편 중에서 단 3편이었고 모두 원저 중에서 동물실험 연구에 속하는 논문들이었는데 이는 영어로 된 논문이 워낙 수가 적기도 하지만 그 종류도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영어로 된 학술지가 드문 한의학계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그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인 것이니, 즉 한의학의 국제화와 SCI 등재 한의학 관련 학술지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노력과 분발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⁹⁾.

논문 저자수의 증가는 고⁹⁾에 따르면 최근 한의학의 연구추세가 단독, 단일기관의 연구에서 공동연구, 다기관 연구로 옮겨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러 기관간의 공동연구와 저자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각 논문의 저자 표시란에 소속 연구기관, 직위, 주소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현재 본 학회지의 형식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는 뒤에 언급할 한의사 전문의 제도와 최근 증례보고의 게재수 증가의 관련성 연구시 자료 부족과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위에서도 잠깐 명칭을 언급하였지만, 원저는 다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즉 기술적 연구, 분석 역학적 연구, 실험적 연구가 그것이다. 이는 원래 김¹⁾이 주장한 역학적 연구방법인데 서¹⁰⁾, 심¹¹⁾, 박¹²⁾ 등이 학회지에 수록된 원저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어를 차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에 준하여 분류하였다. 원래 역학적 연구에서 기술적 연구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파악하여 기술하는 연구 방법이고 빈도로 집계되어 율로 기술하며 자료

의 수집에 사용된다. 분석적 연구는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수행되고, 단면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의 3가지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 가설의 설계와 증명이 수행된 후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는 동물실험으로 일차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한 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며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현장실험을 하게 된다¹⁾. 즉 이것은 역학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분석-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지만, 여기서는 논문의 분류를 위해서 그 용어를 차용하였고 실험적 연구의 경우 크게 동물실험 연구와 임상실험 연구로 나누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저를 분류한 결과 실험적 연구가 90편(65.69%), 기술적 연구가 46편(33.58%), 분석적 연구가 1편(0.73%)의 순이었다. 원저(original article)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곳에는 보고한 적이 없는' 수집된 자료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 결론을 포함하는 연구물이므로 그 특성상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연구자의 생각이 개입된 정도를 기준으로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기술적 연구는 개입의 정도가 약하고, 분석적 연구나 실험적 연구는 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신 등²⁾은 기술적 연구와 분석적 연구는 인과관계의 유무에 따라, 실험적 연구와 비실험적 연구는 간섭변수에 대한 통제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기술적 연구에서 분석적 연구, 실험적 연구로 갈수록 연구자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적 연구와 분석적 연구 중에서 단면연구는 대조군이 필요 없지만, 분석적 연구 중에서 환자-대조군 연구는 대조군이 필요하고 코호트 연구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설계가 더욱 복잡해지고¹⁾, 실험적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설정뿐만 아니라 간섭변수의 통제와 연구자의 개입이라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므로 수행하기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⁵⁾. 이에 대해서 이¹⁶⁾ 등은 '통제정도가 떨어지는 연구에서 얻어진 깜짝 놀랄만한 결과보다, 잘 통제된 임상시험에 의해 증명된 보고들을 더 자주 게재함으로써 정제된 의학연구의 수행을 조장해야 한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실험적 연구 중에서도 동물실험은 연구자의 통제가 쉽고 표본추출과 대조군의 설정이 간편하므로 현재 한의학계와 본 학회지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연구결과를 인간집단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준으로 원저 137편을 분석해 본 결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대조군의 활용을 시도한 논문을 총 6편 찾을 수 있었는데, 분석적 연구에서 환자-대조군 연구가 1편, 실험적 연구에서 임상실험 연구가 5편이었다. 연구설계의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이 논문 6편은 본 학회지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학회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논문들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논문들은 1998년 처음 발표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1, 2편씩 게재되고 있음을 볼 때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연구 설계의 방면에 있어서 대부분이 표본선출의 방법, 대조군의 설정, 간섭변수의 통제, 통계처리 기법의 사용 등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완전한 환자-대조군 연구나 임상실험 연구로 보기에 힘은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도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연구기관이나 생통계학자(biostatistician)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 대상 질환에 있어서 한방 안이비인후과학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6편 중에서 2편으로, 본 학회지의 성격을 살릴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통계학이란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하는 것과 확률에 근거하여 알고 싶은 것을 추론하는 과정인데, 전자를 기술 통계학, 후자를 추측 통계학이라고 한다¹³⁾. 모든 과학적 연구에서 통계적 기법은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살려 주는 중요한 관건이며 한의학의 연구도 실험연구 부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통계기법이 최근에는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검증에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¹³⁾. 원저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55례(36.42%), 기술적인 통계방법만 사용한 경우가 3례(1.99%)였고 처리를 하였으나 밝히지 않은 경우가 34례(23.18%)였다. 통계 처리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t-test(38례, 24.50%), ANOVA(6례, 3.97%), Multiple comparison, Non-parametric test(각 4례, 2.65%), Other methods(2례, 1.32%)의 순이었고 나머지가 각각 1례(0.66%)였다.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밝힌 경우 t-test가 24.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ANOVA(3.97%) 였는데, 이는 이¹³⁾의 연구를 근거로 침구학회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t-test(41.34%), ANOVA(23.17%)의 순으로 그 순서는 같으나 t-test, ANOVA 모두 사용 빈도가 더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인 기법을 분류할 때, 이¹⁴⁾ 등의 연구에 따라 백분율만을 표시한 경우는 'No statistical methods' 항목으로, 평균이나 표준편차 등을 표시한 경우는 'Descriptive statistics only'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원저 중 기술적 연구는 질환군별로 이비인후과 질환(43.48%), 피부과 질환(23.91%), 안과 질환과 구안와사(각 13.04%)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한편, 구안와사도 하나의 항목을 할애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환자수가 많고 게재 논문수도 기술적 연구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13.04%)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원저 중 기술적 연구의 환자수별 분포는 26-50명이 19편(41.30%)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적 연구를 환자 관찰기간별로 나눌 때 관찰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가 65.22%로 연구자의 약 3분의 2는 관찰기간을 1년 이하로 두고 연구를 시행함을 알 수 있었다.

증례보고를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게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자면 2001년과 2002년에 게재된 논문수가 총 56편 중 35편(62.5%)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짧은 기간동안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 수련의들의 논문 게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증례보고는 대부분 3례 이하(전체의 80.36%)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적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작성이 가능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규정상 매년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수련의의 접근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되나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는 본 학회지의 논문형식 중에서 아직 저자 표시란에 저자 각각의 소속 연구기관, 직위,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잘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례보고에서 각 질환군별로 관찰해보았을 때, 2001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비인후과 질환은 7편으로 87.5%, 피부과 질환은 64%, 구안와사는 100%로 최근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했지만, 안과 질환은 3편(27.27%)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안과 질환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증례보고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각 질환군의 세부 영역별 분포 관련 항목을 기술할 때 기술적 연구와 증례보고를 같이 묶은 것은, 신 등²⁾이 주장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인과관계 분석과 연구자의 개입이 없으며 또한 사람들

* 부록 2-3)-(2)-4, 2-3)-(2)-5.

대상으로 하여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각 질환군별 구분은 크게 안과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과 질환으로 하였고 세부 영역을 나눌 때는 盧³⁾, 宋⁶⁾, 歐⁷⁾ 등의 분류기준을 따라 되도록 전 분야를 망라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각 질환군의 세부 영역별 분포에 대한 조사는 실제 임상 현실을 반영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 피부과는 질환은 24개 항목 중 13개 항목(54.17%), 이비인후과 질환은 19개 항목 중 12개 항목(63.16%), 안과 질환은 12개 항목 중 3개 항목(25%)에서 기술적 연구와 증례보고 관련 논문이 한 편도 발표된 적이 없었으며, 이는 일부 질환에 대한 편중 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각 질환군별로 영역을 세분하여 논문을 살펴봐왔을 때, 안과 질환은 증례보고에서 目偏視 질환이 33.33%로 높게 나왔지만 각 항목 간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이비인후과 질환의 경우 鼻科 질환에서 鼻腔 질환이 13편을, 耳科 질환 중에서 內耳 질환이 7편을 차지하여 두 영역이 전체 이비인후과 질환의 68.97%를 차지하였고 특히 이 중에서 鼻炎과 耳鳴이 이비인후과 질환 전체의 55.17%로 편중 현상이 심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피부과 질환 역시 病態反應(allergy)性 皮膚病의 비율이 높고(12편, 33.33%) 그 중 atopy性 皮膚炎(5편)과 蕁麻疹(4편)이 많았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많이 오는 특정 분야의 환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진료 영역을 넓히고 한의사도 특정 질환이 아닌 각 분야의 모든 질병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방 안이비인후과과학의 발전과 연구자 개개인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대한안이비인후

과과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에 대하여 수집, 요약, 정리, 해석하는 작업을 마쳤으나,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논문들의 질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학회지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학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결론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약 15년 동안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그 경향성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논문 관련 항목

동 기간에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편수는 총 308편으로 이중 원저가 137편(44.48%), 종설이 111편(36.04%), 증례보고가 56편(18.18%), 기타 4편(1.30%)이었다. 전체 논문(308편) 중에서 최근 4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163편(52.92%)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논문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가 305편(99.03%), 영어가 3편(0.97%)이었고 논문의 저자수는 2인이 132편(42.86%)으로 가장 많았다.

2. 원저 관련 항목

원저 137편을 연구설계의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실험적 연구가 90편(65.69%), 기술적 연구가 46편(33.58%), 분석적 연구가 1편(0.73%)이었다. 통계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55례(36.42%), 기술적인 통계방법만 사용한 경우

가 3례(1.99%)이었고 치료를 하였으나 밝히지 않은 논문이 34례(23.18%)였다. 통계처리 기법을 사용하고 명시한 경우는 t-test(38례, 24.50%), ANOVA(6례, 3.97%), Multiple comparison, Non-parametric test(각 4례, 2.65%), Other methods(2례, 1.32%)의 순이었고 나머지가 각각 1례(0.66%)였다.

원저 중 기술적 연구 46편은 연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질환군별로는 이비인후과(20편, 43.48%), 피부과(11편, 23.91%), 안과 질환과 구안와사(각 6편, 13.04%)의 순이었다. 관찰 환자수별 분포는 26명 이상 50명 이하가 19편(41.30%)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관찰 기간별 분포는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가 16편(34.78%)이었고 그 중에서도 관찰 기간이 만 1년(12개월)인 경우가 13편(28.26%)이었다.

3. 증례보고 관련 항목

증례보고 56편은 연도별로 2001년 이후가 35편(62.5%)을 차지하여 2001년 이후 발표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질환군별로 보았을 때는 피부과(25편, 44.64%), 안과(11편, 19.64%), 이비인후과(8편, 14.29%), 구안와사(5편, 8.93%)의 순이었다. 증례수별로는 1례(28편, 50%), 3례(9편, 16.07%), 2례(8편, 14.29%)의 순서를 나타내어 3례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0.36%임을 알 수 있었다.

4. 각 질환군의 세부 영역별 분포 관련 항목

기술적 연구와 증례보고 102편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안과 질환과 관련된 논문은 증례보고가 11편(61.11%), 기술적 연구가 7편(38.89%)이었고 질환별로는 目偏視 질환이 6편(33.33%)으로 가장 높았다. 이비인후과 질환과 관련된 논문은 기술적 연구가 21편(72.41%), 증례보고가 8편(27.59%)이었고

이 중에서 鼻科 질환(17편, 58.62%), 耳科 질환(9편, 31.03%), 咽喉科 질환(2편, 6.90%)의 순이었다. 피부과 질환과 관련된 논문의 비율은 증례보고가 25편(69.44%), 기술적 연구가 11편(30.56%)이었으며 病態反應(allergy)性 皮膚病이 12편(3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을 위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보았으며 이는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량학적인 방법에 의지한 경향성의 분석으로, 보다 수준 높은 분석을 위하여 점수표 등을 이용한 연구방법, 통계방법의 타당성 분석 및 질적 메타분석(meta-analysis) 등을 사용하여 학회지의 질적 향상에 힘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정순, 안수연, 양숙자 등; 역학과 지역 사회 보건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99, 101, 113, 115, 1996.
2.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등; 의학 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43-45, 63-73, 2001.
3. 노석선; 원색 안이비인후과학, 서울, 일지사, 1999.
4. 김정순; 역학원론, 서울, 신광출판사, 1987.
5. 이준영, 이은일; 보건·의학 통계학, 서울, 계축문화사, 9, 231-240, 2001.
6. 宋兆友; 中醫 皮膚科 臨床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12, 1996.
7. 歐陽恒, 楊志波; 新編 中醫 皮膚科學, 北京, 人民軍醫出版社, 1-7, 2000.

8. 고성규;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경향성,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3(1), 69, 2002.
9. 고성규; 한의학회지의 뇌졸중 관련논문을 통한 한의학 연구동향과 질적 메타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2(2), 230-231, 2001.
10. 서홍관, 황인홍, 허봉렬; 가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분석, 대한가정의학회지, 11(2), 8-16, 1990.
11. 심경원, 이기정, 이응삼 등;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분석, 대한가정의학회지, 19(4), 353-363, 1998.
12. 손대곤, 오진호, 장석준; 대한 응급의학회지 논문의 분석 및 고찰, 대한응급의학회지, 8(1), 27, 1997.
13. 이승덕; 침구학회지 논문에 응용된 통계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1), 153, 2003.
14. 이정열, 이선동; 한국 한의학 논문의 연구설계와 통계분석에 관한 연구경향,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 108, 1998.
15. 서정철, 남상수, 이재동 등; 대한 침구학회지에 收載된 논문에 대한 분석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6(1), 125-146, 1999.
16. 이형기, 허봉렬, 안윤옥; 1980년대에 발표된 국내 의학연구 논문의 방법론 및 통계처리 기법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 연구, 대한 가정의학회지, 12(6), 47, 64, 1991.
17. 안윤옥, 고응린; 자료처리과정에 대한 통계학적 검토 - 일부 의학잡지에 게재된 논문례를 중심으로, 대한예방의학회지, 6, 81-85, 1973.
18. 박영석; 최근 10년간 대한암학회지에 게재된 임상시험 논문의 분석, 대한암학회지, 32(2), 431-438, 2000.

부록

1. 종설

1. 신정식; 작목의 원인 및 병기에 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 39-48, 1988.
2. 김중호; 안질환의 침구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 49-60, 1988.
3. 오수일; 비연의 외용약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 61-66, 1988.
4. 박항기; 유평의 내복 및 외용약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 67-72, 1988.
5. 정동욱, 채병윤; 간반의 외용약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2(1), 33-40, 1989.
6. 박항기; 담핵에 관한 문헌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2(1), 41-46, 1989.
7. 김중호; 색각장애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2(1), 47-54, 1989.
8. 홍익표, 채병윤; 비색증의 원인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2(1), 55-62, 1989.
9. 김혜정, 채병윤; 비류청체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2(1), 63-72, 1989.
10. 박항기; 면포에 관한 문헌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3(1), 59-72, 1990.
11. 홍익표, 김중호, 채병윤; 대상포진에 관한 동서의학적 비교, 대한외관과학회지, 3(1), 73-88, 1990.
12. 범희변; 비치의 원인과 치방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3(1),

- 89-98, 1990.
13. 김혜정, 김중호, 채병윤: 이명의 원인과 치방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3(1), 99-108, 1990.
 14. 강경준, 안철: 백전풍, 백박풍의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3(1), 109-126, 1990.
 15. 남영: 용석산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4(1), 59-64, 1991.
 16. 최규동, 채병윤: 성음 및 실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4(1), 75-88, 1991.
 17. 강경준, 김중호, 채병윤: 지루 피부염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4(1), 99-110, 1991.
 18. 손동재, 김중호, 채병윤: 결막염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7-26, 1992.
 19. 강승원, 노석선: 안병의 병인 병기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27-44, 1992.
 20. 이정용, 노석선: 이명의 원인별 분류 및 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45-60, 1992.
 21. 정연희, 채병윤: 단독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61-100, 1992.
 22. 고우신, 황충연, 임규상: 담마진의 원인 및 증상에 대한 한의학의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01-112, 1992.
 23. 김윤범, 김중호, 채병윤: 접촉성 피부염에 관한 한방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13-120, 1992.
 24. 임성우: 치질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21-130, 1992.
 25. 채병윤: 상한론 양명병에 있어서 승기탕증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6(1), 71-88, 1993.
 26. 고우신, 최해휘, 임규상: 영추 중 용저의 기전에 대한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6(1), 89-98, 1993.
 27. 정연희, 김중호, 채병윤: 오관과 오장 및 경락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6(1), 99-132, 1993.
 28. 손동재, 김중호, 채병윤: 운무이정(초자체 혼탁)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33-140, 1993.
 29. 최해휘, 고우신, 임규상: 내장 녹풍내장 청풍내장 원에내장 태환내장 경진내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41-154, 1993.
 30. 이진아, 김현아, 이원철: 점안약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55-170, 1993.
 31. 김성배, 김중환, 임규상: 금원사대가의 안병치료법에 관한 문헌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5-34, 1994.
 32. 김성배, 김중환, 임규상: 난청의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한 연구(중의잡지를 중심으로), 대한외관과학회지, 7(1), 35-52, 1994.
 33. 김현아, 정지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7(1), 53-84, 1994.
 34. 김성배, 김중환, 임규상: 전요화단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7(1), 85-94, 1994.
 35. 신상문, 노석선: 외과질환에 상용하는 고약의 처방내용에 대한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7(1), 95-122, 1994.
 36. 김희택, 노석선: 사진중 설진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23-142, 1994.
 37. 류혜정, 채병윤: 비색증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 21-38, 1995.

38. 정찬호, 최규동: 이명의 원인과 치법에 대한 연구(중의잡지를 중심으로), 대한외관과학회지, 8(1), 39-50, 1995.
39. 임규상, 김남권, 김성배: 목건삼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 51-74, 1995.
40. 고우신: 은진의 변증에 따른 치법과 처방의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 75-98, 1995.
41. 김필수, 노석선: 치질, 치루의 치료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 99-112, 1995.
42. 지선영: 골절에 응용되는 내치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13-130, 1995.
43. 이석진, 노석선, 주영승, 노진구: 주단계 관련서적 7종에 나타난 외과질환의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31-132, 1995.
44. 남혜정, 채병윤: 간반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6-24, 1996.
45. 김남권, 황충연, 임규상: 구안와사의 원인과 "남좌여우"에 대한 문헌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9(1), 25-42, 1996.
46. 홍석훈, 노석선: 모발탈락의 병인 및 치료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43-65, 1996.
47. 이종률, 채병윤: 비의 기색과 질병과의 관계, 대한외관과학회지, 9(1), 66-75, 1996.
48. 장성은, 채병윤: 유평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84-98, 1996.
49. 이건학, 노석선: 치병의 원인 및 치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99-113, 1996.
50. 조용주, 채병윤: 침음창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14-128, 1996.
51. 김혜정, 채병윤: 결절 홍반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39-49, 1997.
52. 형양기, 노석선, 주영승: 구창, 구감, 구미, 구취, 구건의 외치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50-90, 1997.
53. 송영림, 노석선, 임락철: 눈을 건강하게 하는 도인술 및 운동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91-121, 1997.
54. 박혜준, 고우신: 변화창의 원인, 증상 및 처방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122-138, 1997.
55. 박상균, 노석선: 비병의 외치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139-158, 1997.
56. 이원주, 김연진, 노석선: 성음의 생리 병리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159-184, 1997.
57. 서형식, 이용구, 노석선: 안병의 외치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185-208, 1997.
58. 김희택, 오영선, 노석선: 림창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209-246, 1997.
59. 박혜준, 고우신: 작반의 원인, 증상 및 처방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247-262, 1997.
60. 김재홍, 김현아, 강운호: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263-283, 1997.
61. 노현찬, 노석선: 치창과 치루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284-305, 1997.
62. 어경정, 고우신: 탈저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 306-331, 1997.
63. 신연상, 노석선: 기미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82-98, 1998.
 64. 황도건, 노석선: 부골저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99-140, 1998.
 65. 장기영, 노석선: 아장풍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141-161, 1998.
 66. 김남옥, 노석선: 유폹의 병인, 병기 및 치료약물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162-179, 1998.
 67. 박세봉, 김종한, 고우신: 이의 도인술 및 운동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180-196, 1998.
 68. 김재홍, 김현아, 강운호: 접촉성 피부염의 외치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197-218, 1998.
 69. 이정용, 노석선: 피부소양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219-239, 1998.
 70. 김남권, 황충연, 임규상: 건선에 대한 동·서의 문헌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154-178, 1999.
 71. 김희택, 노석선: 금원사대가의 외과질환에 대한 연구(옹저창양을 중심으로),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179-214, 1999.
 72. 이정태, 최정화: 오름팔괘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215-240, 1999.
 73. 공남미, 지선영: 아토피 피부염의 양·한방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241-253, 1999.
 74. 이세봉, 고우신: 내장, 녹풍내장, 청풍내장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254-267, 1999.
 75. 김재홍, 김현아: 오사기의 외치법 사상에 대한 연구 <이론병문>중 <략언>을 중심으로,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268-294, 1999.
 76. 윤찬호, 노석선: 비색의 병인, 병기,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295-312, 1999.
 77. 이상옥, 고우신: 항문병 중 치의 범주와 원인 증상 및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313-337, 1999.
 78. 김현아: 비용(Nasal Polyp)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338-355, 1999.
 79. 홍의석, 고우신: 구창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356-368, 1999.
 80. 김수권, 노석선: 안혼, 안맹, 안화의 보간신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83-103, 1999.
 81. 김홍진, 최정화: 육창의 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104-123, 1999.
 82. 노훈정, 문구: 항장요법의 원리, 상용방법 및 임상응용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124-147, 1999.
 83. 장운성, 김인락, 변덕시, 주영승: 정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148-160, 1999.
 84. 조성연, 노석선: 누액에 대한 동·서의 학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161-181, 1999.
 85. 김종성, 김경준: 액취의 병인, 병기, 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157-184, 2000.
 86. 이정용, 노석선: 외과정종에 수록된 외용약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185-208, 2000.

87. 박수연, 최정화: 자시에 관한 문헌적 고찰(원인과 처방을 위주로),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209-236, 2000.
88. 송재철, 정석희, 이종수, 신현대, 김성수: 육창에 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237-252, 2000.
89. 이준성, 노석선: 정창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1-19, 2000.
90. 노현찬, 노석선: 용저에 대한 문헌적 고찰(병인, 병기를 중심으로),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20-50, 2000.
91. 서형식, 노석선: 부첩약의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51-75, 2000.
92. 박수연, 최정화: 상포하수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76-111, 2000.
93. 성병곤, 오춘근, 임규상: 한, 양방 협진 치료를 위한 삼차신경통의 문헌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112-139, 2000.
94. 성현제, 최선미, 윤유식: 미국에서의 Botanical Products(한약)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182-189, 2000.
95. 양태규, 박재현, 김윤범: 비질환에 대한 시대별 문헌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10, 2001.
96. 손동석, 이태헌, 김윤범: 비질환의 치료방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1-31, 2001.
97. 박혜선, 지선영, 구덕모: 아토피 피부염의 중의 외치법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32-41, 2001.
98. 노태석, 노석선: 조갑을 통한 진단의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42-65, 2001.
99. 이준성, 류현신, 서형식, 노석선: 치아 및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44-83, 2001.
100. 류현신, 노석선: 원예내장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07-223, 2001.
101. 정지영, 조수현, 임석인, 노석선: 노육반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42-252, 2001.
102. 문장원, 김훈, 고우신: 황제내경을 통해 본 피부에 관한 내용의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303-321, 2001.
103. 천승철, 이현민, 지선영: 담마진 치료상의 경락과 경혈운용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1), 151-161, 2002.
104. 홍성민, 남혜정, 김성범, 김경준: aromatherapy에 사용되는 식물과 한약 본초의 비교,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1), 162-176, 2002.
105. 정동환, 김종한, 최정화: 안건조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1), 177-197, 2002.
106. 조재훈, 채병윤, 김윤범: 온병학에서의 안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문헌고찰(임증지남의안을 중심으로),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1), 198-218, 2002.
107. 박민철, 김진만, 홍철희, 황충연: 아토피 피부염의 동서의학적 문헌 고찰,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1), 226-252, 2002.
108. 한은정, 김윤범: PubMed 검색을 통해 살펴본 Aromatherapy의 임상연구 동향에 관한 고찰,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1), 276-284, 2002.
109. 정현아, 노석선: 전신성 홍반성 낭창

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
피부과학회지, 15(1), 356-383,
2002.

110. 천승철, 김수경, 지선영: 백발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
과학회지, 15(2), 261-270, 2002.

111. 조재훈, 채병윤, 김윤범: 입증지남의
안에 나타난 피부외과 질환에 대한 문
헌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71-288, 2002.

2. 원저

1) 기술적 연구

1. 김중호, 박항기, 채병윤: 소양증을 수반
하는 피부질환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
한외관과학회지, 1(1), 73-82, 1988.

2. 대한외관과학회지 편집실: 辛芩衝劑로써
과민성비염 367례를 치료한 임상총결,
대한외관과학회지, 3(1), 135-138,
1990.

3. 최인화, 김중호, 채병윤: 咽痛에 관한 임
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4(1),
65-74, 1991.

4. 안수기, 황충연: 구안와사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4(1), 89-98,
1991.

5. 김윤범, 채병윤: 삼출성 중이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33-142, 1992.

6. 최은규, 노석선: 알레르기성 비염(분체)
에 관한 임상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43-150, 1992.

7. 김성철, 황충연: 이침요법을 이용한 이명
증 치료효과에 관한 임상적 관찰, 대한
외관과학회지, 6(1), 191-199, 1993.

8. 최정화: 구안와사(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에 관한 임상적 관찰,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57-168, 1994.

9. 김경준, 홍승욱, 김중호, 채병윤: 인후질환
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77-184, 1994.

10. 김윤범, 채병윤: 녹풍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43-148, 1995.

11. 송영림, 김희택, 노석선: 형개연교탕가
미가 알레르기성 비염에 미치는 효능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63-176, 1995.

12. 최규동, 채병윤: 비출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76-83, 1996.

13. 최은성, 류혜정, 채병윤: 시력저하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46-158, 1996.

14. 김경준, 채병윤: 중의 피부질환의 현황
과 처치에 대한 분석, 대한외관과학회
지, 9(1), 159-165, 1996.

15. 김혜정, 채병윤: 탈모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66-172, 1996.

16. 이영규, 채병윤: 소아에서 구개편도 비
대와 상악동염, 아데노이드 비대의 상
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73-179, 1996.

17. 김경준, 채병윤: 內障과 眼盲疾患의 韓
方治驗에 관한 소고, 대한외관과학회
지, 10(1), 340-348, 1997.

18. 김혜정, 채병윤: 두드러기에 관한 임상
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357-366, 1997.

19. 김남권, 임규상, 황충연: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
관과학회지, 10(1), 367-382, 1997.

20. 임진기, 임규상, 황충연: 좌·우측 구
안와사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
외관과학회지, 10(1), 383-402,

- 1997.
21. 박경화, 김종한, 황충연: DITI 진단을 통한 Bell's palsy의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23-39, 1998.
 22. 채병윤: 面疱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251-268, 1998.
 23. 최인화, 채병윤: 부비동염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269-283, 1998.
 24. 김경준, 채병윤: 소청룡탕 합 옥병풍산 가미방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험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284-291, 1998.
 25. 홍승욱, 채병윤: 안건조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292-299, 1998.
 26. 김혜정, 채병윤: 베체트 병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387-395, 1999.
 27. 박경화, 한영목, 안수현, 황충연: 부항, 뜸, 침, 레이저요법 시술이耳鳴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396-409, 1999.
 28. 김경준: 이명의 형태와 치료효율에 대한 임상적 분석,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182-188, 1999.
 29. 김남권: 구안와사 후유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189-204, 1999.
 30. 김운범, 윤상협: 비침이 비색증에 대한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205-211, 1999.
 31. 서관수, 김동웅: 당뇨환자의 27례의 설진에 관한 임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212-221, 1999.
 32. 김운범: 외관과(外官科)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280-290, 2000.
 33. 최인화: 여드름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140-151, 2000.
 34. 성병곤, 박민철, 임규상: DITI를 이용한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호전도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190-199, 2000.
 35. 최인화: 이명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34-145, 2001.
 36. 조수현, 지선영: 알레르기 비염의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73-182, 2001.
 37. 이진훈, 조성은, 우영민, 남영: 소아근시의 침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53-261, 2001.
 38. 오은영, 박혜선, 구덕모, 지선영: 건선환자 임상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78-285, 2001.
 39. 천승철, 이상곤, 지선영: 통규탕가미방을 투여하여 치료한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임상보고,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45-155, 2002.
 40. 최인화: 알레르기성 비염을 포함하는 과민성 비염환자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69-182, 2002.
 41. 임승환, 정현아, 노석선, 이용구: 금연침 시술을 통해 살펴본 대전지역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조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90-199, 2002.
 42. 우영민, 남영: 편시력저하요인에 관한 의학적 임상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00-209, 2002.
 43. 김찬중, 김혜정, 김운범: 알레르기비염

- 환자의 체질분포 및 특이적 IgE 측정법(MAST CLA)의 임상적 의의,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10-219, 2002.
44. 김경미, 이길영: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20-227, 2002.
 45. 김혜정: 만성 두드러기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52-260, 2002.
 46. 최인화: 한방병원에 내원한 노장층 피부과 환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89-301, 2002.
- 2) 분석적 연구
1. 안탁원, 김병탁: Transcranial Doppler를 이용한 뇌경색 환자의 혈류속도와 반응성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300-318, 1998.
- 3) 실험적 연구
- (1) 동물실험 연구
1. 박항기: 인후질환에 응용되는 필용방감길탕 및 가미필용방감길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 1-14, 1988.
 2. 남영: 역절풍에 응용되는 소풍활혈탕의 소염, 진통, 해열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 15-24, 1988.
 3. 안철, 채병윤: 소청룡탕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1), 25-38, 1988.
 4. 이용근, 채병윤: 진교창출탕과 가미방의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 및 장관수송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2(1), 1-16, 1989.
 5. 안수현, 임규상, 이기남: 사군자탕, 사군자탕 가 황기 전탕액이 생기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2(1), 17-32, 1989.
 6. 홍익표, 채병윤: 비출혈에 응용되는 애백음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3(1), 1-16, 1990.
 7. 황덕찬, 임규상, 이기남: 청열소독음이 실험동물의 진통 소염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3(1), 17-24, 1990.
 8. 김혜정, 채병윤: 청기산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3(1), 25-40, 1990.
 9. 오춘근, 황충연, 이기남: 황금작약탕 전탕액이 혈장 Cortisol 및 진통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3(1), 41-58, 1990.
 10. 김중호, 채병윤: 소풍산과 가미소풍산이 면역반응 및 항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4(1), 1-22, 1991.
 11. 노석선, 이기남: 당귀음자 수추출액이 항 allergy 반응과 mouse의 면역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4(1), 23-42, 1991.
 12. 김소영, 김중호, 채병윤: 탈모에 응용되는 신옹양진단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4(1), 43-58, 1991.
 13. 김성배, 고우신, 임규상: 대황목단피탕이 실험동물의 진통 소염 진정 및 정상 체온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16, 1992.
 14. 김수정, 김중호, 채병윤: 소풍양제탕이 항 알레르기 및 진통 소염효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14, 1993.
 15. 최규동, 김중호, 채병윤: 은화감초탕과 가미방이 항알레르기 해열 소염 진통효

- 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5-30, 1993.
16. 이정숙, 노석선: 가미청심연자음 전탕액이 항 allergy 반응과 mouse 의 면역세포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6(1), 31-52, 1993.
17. 강승원, 노석선: 탁리황기탕이 소염 및 조직재생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6(1), 53-70, 1993.
18. 김경준, 김중호, 채병윤: 회춘양격산이 항 알레르기 및 소염, 진통, 해열 효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14, 1994.
19. 김남권, 황충연, 임규상: 승마갈근탕가미방이 마우스의 항 allergy 및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20, 1995.
20. 최정화: 당귀음자가삼수가 피부암세포(A431)의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15, 1996.
21. 지선영, 정대규: 가미계명산 및 그 구성약물이 백서의 어혈병태모형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1-38, 1997.
22. 김남권, 김중환, 임규상, 황충연: 용담사간탕의 항 바이러스 활성 및 면역반응에 대한 실험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1-22, 1998.
23. 이관순, 김중환, 황충연, 임규상: 실험동물 모델에서 금황산의 급성 피부질환에 대한 항 알레르기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40-53, 1998.
24. 어경정, 고우신, 김형균: 자운고가 흰쥐의 창상에 미치는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54-68, 1998.
25. 김진, 김중환, 김남권, 임규상: 청대산에 의한 피부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억제,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69-81, 1998.
26. 한영목, 임규상: 신이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1-17, 1999.
27. 임규동, 채병윤: 황련, 진피, 진피산이 녹농균성 각막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18-35, 1999.
28. 김창기, 황충연: 신이화에 의한 즉시형 알레르기의 반응억제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36-46, 1999.
29. 강승원, 노석선: 회춘양격산과 용석산이 항염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47-78, 1999.
30. 최용, 최정화: 탁리소독음이 항종양 및 면역작용에 미치는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79-98, 1999.
31. Ko Woo-shin: The Effects of Jawoongo plus Rehmanniae Radix on The Wound Healing of Rats,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99-112, 1999.
32. 이건학, 노석선: 건선에 활용되는 가미당귀음자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113-142, 1999.
33. 임규상: Neuropathic pain을 일으킨 쥐에 있어서 침의 진통작용,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143-153, 1999.
34. 김남욱, 노석선: 가미생기옥홍고가 생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1-19, 1999.
35. 김희택, 노석선: 내탁천금산가미방이 3-MCA로 유발된 피부암 및 면역조절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20-52, 1999.
36. 윤현자, 윤용갑, 강순수: 도적산이 백서 신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53-66, 1999.

37. 임승환, 노석선: 인공응답성분(UDCA)의 항염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67-82, 1999.
38. 박희선, 채병윤: 가미비파청폐음이 면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1-21, 2000.
39. 서형식, 노석선: 소풍산의 allergy 억제 효능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22-29, 2000.
40. Park se-bong, Ko woo-shin: The Effect of Cninnier(L) Cuss(사상자) on the Essential Elements to the Activated Macrophages,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30-43, 2000.
41. 양기호, 정현우, 최정화: 내탁천금산 및 그 가미방이 마우스의 면역세포 및 암세포에 미치는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44-59, 2000.
42. 남혜정, 채병윤: 이중당과 이중당 가미방의 항 알레르기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60-77, 2000.
43. 김재주, 임규상, 류영수: Pine Oil이 백서의 혈중 지질대사 개선 및 체중변화에 미치는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78-99, 2000.
44. 김홍진, 최정화: 항암 및 면역에 대한 탁리소독산의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100-115, 2000.
45. 이태욱, 문구, 원진희: 항장요법에 의한 지실의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 억제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116-128, 2000.
46. 최정화: 신평내탁산이 면역세포 및 종양에 미치는 실험적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129-140, 2000.
47. 배성혁, 문구, 원진희: 항장요법에 의한 정향의 즉시형 과민반응 억제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141-156, 2000.
48. 김백철, 강경식, 주영승: 당삼의 내부 구조 규격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253-266, 2000.
49. 최규동, 권영규: 족부백선균의 한방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1), 267-279, 2000.
50. 이영규, 채병윤: 신이청폐음의 항 allergy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165-181, 2000.
51. H.M.Kim, Y.H.Lee, H.J.Chae, H.R.Kim, S.H.Baek, K.S.Lim, C.Y.Hwang: Shini-San Inhibits Mast Cell-Dependent Immediate-Type Allergic Reactions,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211-220, 2000.
52. 문영호, 문석재, 문구, 권진희, 김태균, 배남규: 가미승갈당의 항장요법에 의한 급·만성 알레르기 반응 억제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17-128, 2001.
53. 강기홍, 김윤범, 채병윤: 승마갈근탕가미방이 제 I형 알레르기를 실험적으로 유발한 흰 쥐의 면역세포 및 혈청 IgE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29-153, 2001.
54. 박수연, 최정화: 내소산의 항암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54-166, 2001.
55. 성현제, 윤유식: Cisplatin에 의한 흰 쥐의 신장독성과 간기능에 고삼 투여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67-172, 2001.
56. 이준성, 서형식, 노석선: 수종의 천연물을 이용한 소양증치료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 173-181, 2001.
57. 서부일, 김미려, 박지하, 지선영; 전탕 방법의 변화에 의한 오직산 물추출액이 Hydrocortisone acetate로 유발한 어혈병태에 미치는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82-189, 2001.
58. 신연상, 이준성, 노석선; 유백피의 항염 및 조직재생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90-208, 2001.
59. 이관순, 김재주, 송채석, 오춘근, 임규상; 천화분이 멜라닌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209-225, 2001.
60. 이준성, 서형식, 노석선; 수종의 한약재에 함유된 QUERCETIN의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226-239, 2001.
61. 이종범, 문석재, 문구, 원진희, 김태균, 배남규; 항장요법에 의한 신포당의 항아나필락시 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240-249, 2001.
62. 이준성, 서형식, 노석선; 소풍산가미의 항알레르기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9-20, 2001.
63. 노태석, 임낙철, 노석선; 수종의 한약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1-34, 2001.
64. 서형식, 노석선; 가미탁리소독음이 창상 치유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89-111, 2001.
65. 김상찬, 변준석, 박종현, 지선영, 변성희, 이형식; 인진호당의 랫드에서의 단회투여독성시험,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18-124, 2001.
66. 박재현, 채병윤; 온폐탕과 온폐탕거총백의 항알레르기효과 및 진통, 해열작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54-172, 2001.
67. 최정현, 황충연, 김남권, 박민철, 김진만, 문상돈; 마황신이산의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31-241, 2001.
68. 노태석, 노석선; 수종의 한약 추출물이 항알레르기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1-30, 2002.
69. 정지영, 노석선; 메밀(교맥)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31-49, 2002.
70. 김성범, 김경준; 연교패독산 가미방이 염증상태의 면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50-62, 2002.
71. 김창환, 김경준; 용담사간탕 가감방의 지혈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63-75, 2002.
72. 양태규, 김윤범, 채병윤; 갈근탕과 가미갈근탕의 항알레르기 및 소염, 해열, 진통작용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76-95, 2002.
73. 노현찬, 노석선; 고삼추출물이 모발성장 촉진 및 면포 억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96-126, 2002.
74. 류현신, 노석선; 백내장방이 백내장 형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127-139, 2002.
75. 홍석훈, 노석선; 청상방풍탕 가미가 면포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315-335, 2002.

76. 남봉수, 김윤범; 삼소음과 삼소음가미방의 항알레르기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343-355, 2002.

77. 정현아, 임석인; 수중 한약재의 치아미백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19, 2002.

78. 김진만, 박민철, 홍철희, 김남권, 황충연; 더덕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0-32, 2002.

79. 김홍진, 최정화, 김종한; 우방자 추출물 및 분획층이 항알레르기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33-52, 2002.

80. 강학천, 이수형, 김남권, 임홍진, 황충연; In vivo와 In vitro 평가모델을 이용한 한약추출물의 모발성장 및 촉진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53-79, 2002.

81. 최용, 최정화, 김종한; 수종의 한약재가 모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80-103, 2002.

82. 손동석, 김윤범; 가감 서시옥용산의 미백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04-117, 2002.

83. 정동환, 최정화, 김종한, 정현우; 탁리황기탕이 항암 및 면역작용에 미치는 실험적 효과,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18-131, 2002.

84. 배진석, 최정화, 김종한; 신수위생탕의 항종양 효과,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32-144, 2002.

85. 심상희, 김종한, 최정화, 정현우; 십육미류기음의 항암 및 항암제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302-314, 2002.

(2) 임상실험 연구

1. 박양춘, 임석린, 김병탁; 뇌경색 환자에 서 은행엽추출물의 치료효과, 대한외관과학회지, 11(1), 240-250, 1998.

2. 최수철, 황충연; 이침을 활용한 금연침시술이 흡연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1), 369-386, 1999.

3. 윤정훈, 김종한, 황충연, 임규상; 합곡(LI₄), 삼간(LI₃)의 전침자극이 안면부 영역 온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외관과학회지, 12(2), 222-247, 1999.

4. 우영민, 남영; 침의 거자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안구의 Blind spot 변화에 대하여),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200-210, 2000.

5. 김윤범, 김호철; 전통 한방처방을 이용한 기초 한방화장품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259-275, 2002.

3. 증례 보고

1. 임승숙, 채병윤; 박탈성 피부염의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1), 83-88, 1988.

2. 범희변; 면포증에 대한 치험소고, 대한외관과학회지, 2(1), 73-76, 1989.

3. 정동욱; 반하백출천마탕의 두통 치료 임상례, 대한외관과학회지, 2(1), 77-78, 1989.

4. 김중호, 채병윤; 건선환자의 치험 3례, 대한외관과학회지, 3(1), 127-134, 1990.

5. 황경식; 맥립증에 대한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31-132, 1992.

6. 강송지; 결절성 홍반환자의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5(1), 151-152, 1992.

7. 노석선, 신경숙, 이정숙: 마비성 사시환자 3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71-178, 1993.
8. 최규동: 안정피로 환자의 치험 8례,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79-184, 1993.
9. 김중호, 채병윤: 한랭 두드러기 환자의 치험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6(1), 185-190, 1993.
10. 김중호, 김윤범, 채병윤: 외선신경마비 사시환자의 한방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43-148, 1994.
11. 신경숙, 노석선: 색각이상 환자 4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49-156, 1994.
12. 최규동: 맥진기를 이용한 안이비인후과 질환 치험실례,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69-176, 1994.
13. 지선영: 아토피성 피부환자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7(1), 185-192, 1994.
14. 김중호: 소아사시 10례의 임상적 연구,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33-142, 1995.
15. 고우신: 폐풍분자의 치험 1례 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49-152, 1995.
16. 정찬호, 지선영: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단식치료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8(1), 153-162, 1995.
17. 홍승욱, 채병윤: 근시환자 치험 10례,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29-135, 1996.
18. 송영림, 김희택, 오영선, 노석선: 마비성 사시환자 3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9(1), 136-145, 1996.
19. 김경준, 채병윤: 계지탕 가미방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험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332-339, 1997.
20. 최규동, 채병윤: 대상포진 환자의 치험 3례 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0(1), 349-356, 1997.
21. 조재훈, 김윤범, 채병윤: 안면신경마비와 마비성 사시를 병발한 환자의 증례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3(2), 152-164, 2000.
22. 김종성, 김경준: 면포산의 면포질환 치험 8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66-75, 2001.
23. 조성호, 이길영: 이성 대상포진의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76-86, 2001.
24. 한을주, 김봉찬, 이명중: 편타성 손상 후 발생한 뇌진탕증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87-93, 2001.
25. 오은영, 지선영, 구덕모: 만성 피부질환 환자에 대한 절식요법 치험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94-104, 2001.
26. 윤정훈, 김경현, 장수진, 신민섭: 약침을 이용한 원형탈모증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05-110, 2001.
27. 김혜정: 급성 화폐상 습진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방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1), 111-116, 2001.
28. 김성범, 김종성, 김경준: 비연에 응용되는 보중익기탕 가감방의 치험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8, 2001.
29. 박세봉, 윤화정, 윤정원, 고우신: IgA 포진상 피부염의 치험 1례 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35-38, 2001.
30. 김찬중, 한은정, 채병윤: 족척에 발생한 편평태선 증례보고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39-43, 2001.
31. 한은정, 김찬중, 홍승욱, 김윤범: 청피반성 혈관병증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84-88, 2001.
32. 조재훈, 김윤범, 채병윤: 편두통을 동

- 반한 재발성 외전신경마비 사시환자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12-117, 2001.
33. 박혜선, 조수현, 오은영, 지선영; 이성대상포진 증례보고 2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25-133, 2001.
34. 김홍진, 박수연, 김종한, 최정화; 이명환자 5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46-153, 2001.
35. 권강, 박영환; Ramsay Hunt syndrome 환자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83-193, 2001.
36. 최인화; 진행성 색소성 자반병 한방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94-197, 2001.
37. 김남옥, 채상진, 손성세; 4번째 동측으로 발생한 벨마비의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198-206, 2001.
38. 이준성, 류현신, 서형식, 노석선; 망막중심동맥폐쇄 환자 1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24-230, 2001.
39. 김창환, 김현기;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임상 치험례 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62-270, 2001.
40. 조성호, 김경미, 이길영; 임상적으로 진단된 결절홍반의 실험적 침 치험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71-277, 2001.
41. 박수연, 김홍진, 김종한, 최정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1례에 관한 임상 보고,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86-294, 2001.
42. 김홍진, 김종한, 최정화; 삼차신경통 환자의 치험 1례, 대한외관과학회지, 14(2), 295-302, 2001.
43. 구영희, 최인화; 만성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험 3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140-150, 2002.
44. 오은영, 조수현, 지선영; 한방치료로 완전 탈락된 비용환자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219-225, 2002.
45. 김필수, 김희택; 소아 농가진 환자 1례에 대한 임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253-258, 2002.
46. 김창환, 선영재, 김현기; 뇌출혈을 동반한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285-290, 2002.
47. 박수연, 최웅, 김종한, 최정화; 칠창환자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291-300, 2002.
48. 조수현, 지선영, 이상곤; 탁리소독음의 증이염 치험 2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301-307, 2002.
49. 김경미, 조성호, 이길영; 다발성 골단이형성증 환자 보고,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308-314, 2002.
50. 심상희, 김종한, 최정화; 당귀음자가감을 응용한 건선 환자 1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1), 336-342, 2002.
51. 권강, 최관호, 박재영, 위종성, 박희수, 박영환; 돌발성 난청 환자 3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56-168, 2002.
52. 원영호, 소용룡, 이순화, 김제관; 인영촌구 비교맥진을 통한 간화 담화성 이명환자 침 치료 4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183-189, 2002.
53. 남혜정; 주사비의 한방치험,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28-236, 2002.
54. 홍철희, 박민철, 황충연, 김진만; 포도막염 치험 2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15(2), 237-243, 2002.

55. 류현신, 이준성, 김정호, 이용구: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환자 1례와 동창상 홍반성 루프스 환자 1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2), 244-251, 2002.
56. 정동환, 심상희, 최정화: 화상환자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과과학회지, 15(2), 315-325, 2002.
2. 채병윤: 접촉성 피부염에 관한 고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1), 91-92, 1988.
3. 오수일: 작반의 외용약에 의한 치료에 관한 소고, 대한외관과학회지, 2(1), 79-80, 1989.
4. 대한외관과학회지 편집실: 인후질환에 사용되는 처방, 대한외관과학회지, 2(1), 81-82, 1989.

4. 기타

1. 김용동: 축농증의 한방요법, 대한외관과학회지, 1(1), 89-90, 1998.